

# 전당 운영인력 423명... 2015년 45개 공연·축제

## 내년 9월 개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계획과 콘텐츠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내년 7월 예비 개관을 거쳐 9월4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문화전당이 개관하는 2015년에는 모두 160여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창출면에서는 문화전당을 운영할 전당인력 423명을 비롯해 1000여명에 달하는 직접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추진단이 27일 확정 발표한 콘텐츠 계획에 따르면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아시아 예술극장에서는 연간 45~48개에 달하는 공연·축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문화전당은 고정적으로 매년 4대 축제를 개최한다. 아시아 고메(Gourmet) 페스티벌(아시아 음식 축제), 한여름 밤의 페스티벌, 48시간 광주뮤지컬페스티벌, ACC(아시아 문화전당) 축제 등이다.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 가운데 민주평화기념관, 아시아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 파크, 문화창조원 다목적 홀의 전시와 공연은 무료 개방되는 등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리게 된다.

◇문화전당 어떻게 운영되나=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이 공개한 문화전당 운영계획에 따르면 문화전당은 6개 본부, 4명의 예술감독, 연구소·센터로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개정돼 문화전당의 운영주

### 내년 관람객 160만명 예상

### 4개월 공연·전시 무료개방

### 매년 4대 축제 정기적 개최

### 콘텐츠 못채워 개관 효과 의문

체가 정부 소속이 되면 이 구성안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운영주체가 법인이 되면 여기에 이사회가 신설된다.

특별법 개정과 무관하게 조직 구성의 공통사항은 변함이 없다. 구체적으로 전당장을 두고 전당운영·민주평화 교류원·아시아문화정보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 문화원 등 6개 본부에 본부장을 두는 체계로 구성되는 안이다.

문화전당의 필수 운영인력은 모두 423명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기획·운영 업무 등을 담당할 일반직(공무원 포함)은 모두 257명, 문화예술 관련 전문직은 모두 166명이다. 추진단은 오는 9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오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전당 개관시 방문객은 연간 160만여명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파급 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27일 광주시 남구 광주 문화재단에서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열린 세미나'를 열고 문화전당 운영계획과 개관 콘텐츠(전시, 공연 프로그램)를 공개, 여론을 수렴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과는 3만6000여명(직접고용 1000명)으로 기대되고 2조7603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문화전당을 대표하는 공연공간인 아시아예술극장에서는 연간 45~48개에 달하는 공연·축제 등이 선보인다.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나머지 민주평화교류원·아시아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어린이문화원에서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민주평화교류원은 프랑스 풍피두 센터,

영국 바비칸 센터 등 해외 문화기관과 교류, 아시아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ODA 사업을 맡게된다.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의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표 전시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드라마틱한 국면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열흘간의 나비떼'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은 문화연구소·아시아문화 아카데미 자원센터 등을 두고 아시아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시아문화 아카데미는 문화기획

자·아티스트 등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정보원의 라이브러리파크는 아시아 민족의 삶과 문화를 집약한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다.

문화창조원은 창작자 센터를 두고 인문·예술·과학을 융합한 아시아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창작자 센터에서 만들어진 창작물 등은 5개 복합 전시관에서 공개된다.

어린이 문화원은 문화체험관,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극장, 창작교실 등으로 꾸

러진다. 어린이 문화체험관은 자연과 일상, 지식과 문명, 예술과 상상 등 부문별로 아시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지만, 문화전당은 오는 2015년 9월 개관에도 콘텐츠를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개관시 모든 콘텐츠가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지속적 관점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

# 시도지사 내년 국비 확보 '바쁘다 바빠'

## 윤시장 車 100만대 생산기지 예타성 대상 선정 요구

## 이지사 남해안철도 건설·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건의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7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대통령 지역 핵심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윤 시장은 또 '조경량 고강성 차체 세시 부품 기술개발'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70억원 지원, 광주 R&D(연구·개발)특구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60억원 지원도 요청했다.

윤 시장은 특히 "문화전당, 빛가람혁신

도시, CGI센터 권역을 연결해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설계용역비 2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시장은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앞서 지난 25~26일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2명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연 의원에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구축 예산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예산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협조를 당부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도 27일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관하는 '시도지사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남해안철도(보성~임성)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등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재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별도로 면담하고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이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내달 23일까지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향후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기재부의 최종 심의과정,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 등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 및 지역 출신 국회의원·중앙부처 관계 인사와 협조체제를 풀 가동할 방침이다.

/윤현성기자 chad@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풀잎 한줄기에도 조화로운 신의 섭리가



김은영의 '그린 생각'

### (80) 일상

지난 여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몇 차례 태풍과 폭우, 신적 영감을 한껏 느끼게 해주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골진 갈등들. 그래서인지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짙황하게 푸르른 빛이 펼쳐져 있는 하늘을 올려다 보거나, 한결 순해진 햇살을 느낄 겨를은 꿈도 꾸지 못하다가 어제는 장엄한 저녁노을에 이끌린 몇 분간의 산책으로 설레었다. 발아래 풀숲들의 거친 모습이나 무성함도 새삼 기습을 줬다.

독일의 알브레히트 뒤러(1471~1528)의 작품 '풀밭'(1503년 작)이 꼭 그런 느낌을 준다. 전통적인 독일 양식인 후기 고딕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을 받아들였던 뒤러는 종교개혁의 새로운 물결에 맞서 이에 걸맞은 인간유형을 작품으로 형상화해 '묘사의 미술'이라 일컫는 독일미술의 새 장을 열었던 작가. 평생토록 미의 궁극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애써왔던 뒤러가 묘사한 잔디 한 덩어리는 어찌 보면 사소하기까지 하다. 자연의 일부 이미지에서 특별한 감동을 받았을 동기가 있었을까?

뒤러의 예술 평전을 펴냈던 20세기 미술사의 거장 하인리히 빌헬름(1864~1945)은 "뒤러의 모든 묘사는 아주 뚜렷한 질서와 비례로 녹아들어 있다. 풀잎들은 어떻게든 배열된 것이 아니라 형태에 질서를 잡아주는 일정한 조화와 법칙이 있다"고 언급한다. 작품 '풀밭'의 비밀은 자로 잰 듯한 배열의 법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아러 더욱 진밀하고 정다운 느낌을 준다는 데 있다.

뒤러는 신이 의도한 아름다움은 자연 속에 숨어있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움의



알브레히트 뒤러 작 '풀밭'(1503년)

완형을 자연법칙에서 발견하고자 했기에 모든 창조 대상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시각기관을 되도록 완벽히 사용하겠다는 야심을 지니기도 했다. 풀잎 한 줄기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한 화가의 작품을 앞에 두니,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풍경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2014년 Summer Special 그린피 할인 Event

8월 1일(금) ▶ 8월 31일(일)

특별할인				(단위: 원)			
구분	T/O 시각	할인금	토~일(공휴일)	구분	요일	선호시각	비선호시각
18홀 기준	1부	63,000	133,000	1박 2일	월~금	176,000	156,000
	07:00~09:00			토~일	236,000	226,000	
	2부	73,000		36홀+조식+골프텔	토~일	276,000	266,000
	12:00~14:00			일~월	216,000	206,000	

\*특별할인은 한정하지 않으며, 카트비 별도금액입니다. \*1박2일 패키지 요금은 4인 기준 36홀 원로기준입니다.  
\*1인 무료 라운드상품권은 당일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상기 요금은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할인					
내용	대상	기간/해당요일	그린피 할인 등	비고	
사이버회원 추가할인	신규가입자 및 기존회원	2014. 7. 7일~9. 30일	추가 10,000원 할인	주중, 주말 모두적용	
Lady Day	여성고객 전원	매주 월요일	그린피 63,000원 적용		
그랜드 시니어 할인	만 60세 이상 고객 전원	월~금(공휴일 제외)	추가 10,000원 할인	프린트 산본증 제시	

\*남성 복장은 무릎 위 반바지는 착용할 수 없으며 7부 반바지는 허용됩니다.  
\*위 공지 카트비는 별도이며 중복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함평다이내스티컨트리클럽

DYNASTY 061.320-7700/7777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서당매길 242